

## B441

산성토양에 시비한 돌로마이트가 외생균근균 발생에 미치는 영향

김 창 기\* · 류 태 철<sup>1</sup> · 김 준 호

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, <sup>1</sup>환경부 자연생태과

산성토양에 시비한 돌로마이트가 외생균근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3년에 서울 관악산의 소나무-리기다소나무림과 신갈나무림에 돌로마이트 1,500 kg/ha와 3,000 kg/ha의 처리구를 만들고, 1994 - 1995년에 걸쳐 외생균근균의 발생량을 조사하였다. 외생균근균의 발생종 수는 돌로마이트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2 - 4배 많았다. 신갈나무림에서는 돌로마이트를 처리한 지 1 - 2년 후에 광대버섯과 (Amanitaceae)와 그물버섯과 (Boletaceae)의 균근균의 증가가 뚜렷하였고, 소나무-리기다소나무림에서는 처리 1년 후 전체 발생량이 감소하였지만 2년 후에 증가함으로써 외생균근균 발생에서 돌로마이트의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었다.

## B442

산성토양에 시비한 돌로마이트가 토양과 토양유출수의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

김 창 기\* · 류 태 철<sup>1</sup> · 김 준 호

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, <sup>1</sup>환경부 자연생태과

산성토양에 시비한 돌로마이트의 산성토양 개량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3년에 서울 관악산의 소나무-리기다소나무림과 신갈나무림에 돌로마이트 1,500 kg/ha와 3,000 kg/ha의 처리구를 만들고, 1994 - 1995년에 걸쳐 토양과 토양유출수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. 소나무-리기다소나무림과 신갈나무림에서 돌로마이트 처리 후 토양의 pH가 상승하였고, 토양유출수의 pH 상승, Ca과 Mg 함량 증가, Al/Ca, Al/Mg의 mole 농도비의 감소가 일어남으로써 토양개량효과가 뚜렷하였다.